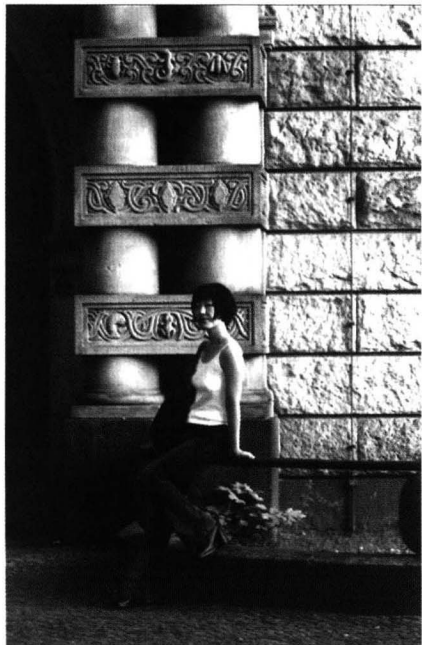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심의 표명, 소설적 자아를 찾는 여행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 배수아 지음 | 문학과자성사 | 296쪽 | 값 8,500원



“작가로서의 관심은 인간의 무지나 군중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모순의 상황들, 모든 전통적인 것들의 폭력성, 집단에서 공론화되고 인정받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의 숨 막히는 저열함에 있습니다. 작가로서 내 시선의 초점은 개개인의 인간이라기보다는 사회현상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작가 배수아 씨는 새로 펴낸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에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한다. 여성, 소외, 노동, 육아, 결혼, 복지 등 사회적인 문제를 골고루 다루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표면적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빈곤의 기원과 구조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경제적 빈곤에 허덕인다. ‘마’가 그렇고 ‘노용’이 그렇고 ‘진주와 성도’가 그렇다. 예술적 감성과 지적 세련은 빈곤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할 뿐이다. 작가는 계급적 관점에서 빈곤을 바라보던 기존 소

설의 구도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꿔 놓는다.

“계급적인 관점으로만 빈곤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그것의 진위여부를 떠나 좀 싫증난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계급의 문제는 서서히 유전자의 문제로 형질전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부모의 교육 정도를 포함한 출신 계층이나 교육받은 정도, 그리고 현재의 재정상태가 인간의 도덕심이나 위기에 대한 반응, 이성에 대한 취향 등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가능하다면 그것들이 전문적인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으면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녀는 10년 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최근에 그만뒀다. 그리고 두 차례 독일에 가서 수 개월을 혼자 지내다 왔다. 그녀에게겐 모처럼의 휴식이었던 셈. 소설쓰기와 이번 소설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진 ‘노동’의 관계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소설쓰기와 완전하게 중복된 10년의 직장 시기는 나에게 몹시도 혼란스럽고 잘 규명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글쓰기는 나에게 말 그대로 여분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두 개의 인격체가 내 안에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소설가로서의 자아는 상당히 학대받거나 소홀하게 취급당하고 의심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모욕받았다고 생각되는 기억도 많습니다. 2001년 독일에 머물면서 그것에 대해 자각하게 됐지요.”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에는 다양한 인물 군상이 나온다. 이들 인물들은 각각 구체적인 인생관과 결혼관, 이성관 등을 피력한다. 독자로서는 그것에 작가의 입장이 어느 정도나 개입되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동의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캐릭터를 창조해 내는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일까.

“내 생각으로는 내가 증오하거나 경멸하는 유형의 캐릭터에게 생명감을 주기 위해서는 작가가 충분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의식적인 상황이나 정신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작가는 나르시시즘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이것은 작가 개인의 작업 스타일에 많은 부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할 거예요.”

발표할 때마다 평단과 독자들의 비상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등단 11년 차의 이 작가는 현재 장편소설을 쓰고 있다고 밝힌다. 앞으로는 전작 형태의 작품을 많이 쓸 계획이라고. 여름과 가을의 경계쯤에는 다시 독일에 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저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 현재에 만족해요. 그것이 내 자신의 빈곤을 대가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김도연 기자

